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 서플러스글로벌 (140070)

##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빈티지 와인 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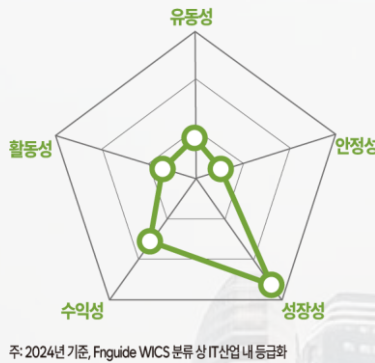
### 체크포인트

- 서플러스글로벌은 2000년 3월 김정웅 대표이사가 설립한 반도체 중고장비 전문기업. 설립 초기부터 수출 중심의 사업 전략을 펼쳐 200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독립한 후, 2017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함. 2006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21년 '일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18년과 2022년 Forbes 아시아 유망기업으로 선정.
- 핵심 경쟁력은 25년간 축적된 사업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함.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허브 지역에 해외 종속회사 6개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 대의 중고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2,516억 원 중 수출이 2,045억 원(81.3%)을 차지하여 글로벌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기존 중고장비 유통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6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B2B 플랫폼 'SemiMarket'을 출시하며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음. 6만대 이상의 장비 공급 경험과 15만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발된 AI 기반 매칭 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부품 거래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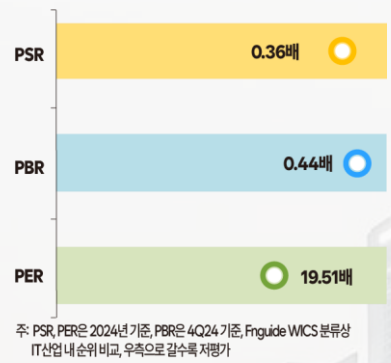
### 주가 및 주요이벤트



### 재무지표



### 밸류에이션 지표



### 중고장비와 신사업 영역의 균형 있는 성장 전략 추진

서플러스글로벌은 기존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사업과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두 트랙 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중고장비 사업은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매입-매각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통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SemiMarket'을 통한 AI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반도체 부품 거래의 효율성 혁신을 추진함. 2025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한 Parts 비즈니스 관련 8개 사업 목적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시설 공유 및 지원 사업 신규 진출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왔음.

### 중고장비 포트폴리오는 전공정 장비에서 시작해 장비 개조 기술까지 확장

중고장비 포트폴리오는 전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리소그래피, 식각, 증착, 이온 주입 장비 등 핵심 반도체 제조 장비를 포함함.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반도체 공정의 정밀도와 신뢰성이라는 공통 기술 기반 위에서 거래되어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중고 Etcher 장비를 IGBT나 MEMS 용도로 개조하는 Deep Silicon Etcher 개발, 300mm 식각장비를 200mm 반도체 식각장치로 전환하는 기술 등을 보유하여 고객 맞춤형 장비 개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 진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중고장비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반도체 거래 플랫폼 시장 진출을 위해 'SemiMarket'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AI 기반 매칭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장비 이력 추적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중인데, 이는 기존 반도체 부품 시장의 분산된 정보와 복잡한 거래 과정을 해결하는 혁신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음.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억 원)	2,349	1,660	2,516	2,187	2,625
YoY(%)	13.7	-29.3	51.5	-13.1	20.0
영업이익(억 원)	319	130	142	75	150
OP 마진(%)	13.6	7.8	5.6	3.4	5.7
지배주주순이익(억 원)	256	58	46	17	74
EPS(원)	691	157	124	45	200
YoY(%)	-7.8	-77.3	-20.8	-63.6	343.3
PER(배)	5.1	23.3	20.6	51.0	11.5
PSR(배)	0.5	0.8	0.4	0.4	0.3
EV/EBITDA(배)	5.3	12.5	11.0	11.8	9.5
PBR(배)	0.7	0.7	0.5	0.4	0.4
ROE(%)	14.8	3.1	2.4	0.9	3.8
배당수익률(%)	1.4	0.8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8/20)		2,300원
52주 최고가		3,520원
52주 최저가		2,295원
KOSDAQ (8/20)		77761p
자본금		37억원
시가총액		851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37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0.86%
주요주주	김정웅 외 9인	56.71%
	이창호	5.17%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3	-17.9	-24.1
상대주가	-2.1	-18.8	-23.1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사업을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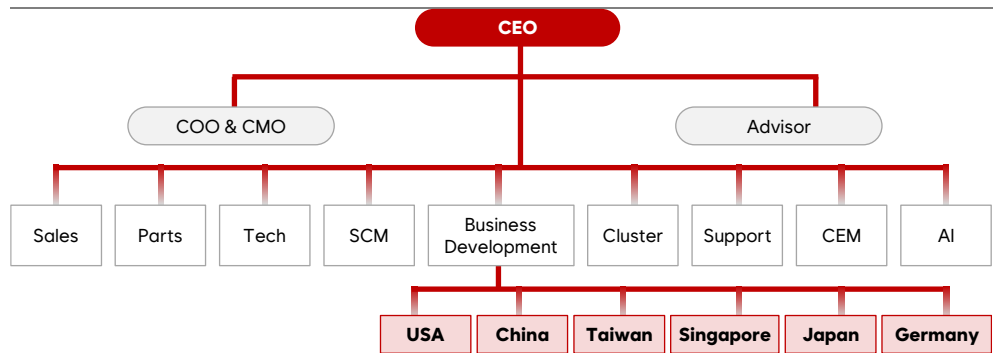
#### 24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

서플러스글로벌은 2000년 3월 28일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간 수천 대의 중고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설립 이후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중고장비 매입매각 전문업체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2017년 1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4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서플러스글로벌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장비 순환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중고장비 거래 플랫폼으로서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해외 종속회사 6개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으로 운영

서플러스글로벌은 글로벌 반도체 중고장비 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허브 지역에 해외 종속회사 6개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산호세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중국 상하이, 대만 신주, 싱가포르, 일본 도쿄를 거쳐 2024년 8월 독일 뮌헨에 법인을 설립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완료했다. 국내에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수리 전문 업체인 이규글로벌(지분율 76.33%)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토크이네(지분율 62.23%) 등 2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규글로벌은 중국 우시에 2개의 생산법인을 두고 서플러스글로벌의 중고장비 거래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 서플러스글로벌 조직도 및 해외법인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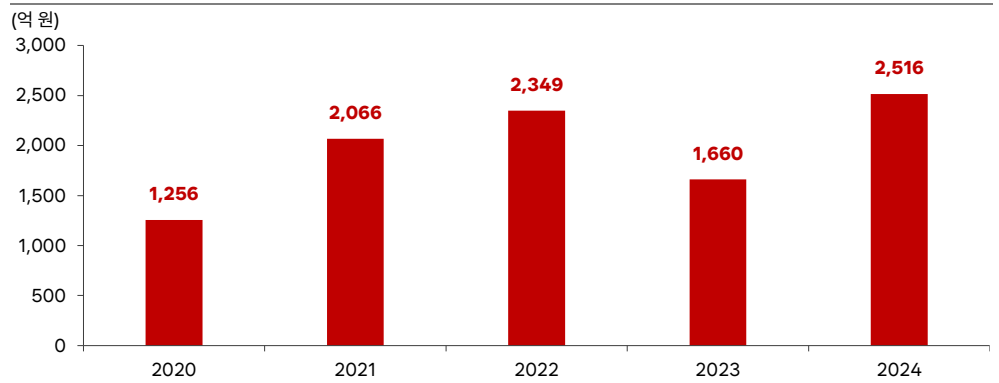
한편, 타법인 출자를 통한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 2월 미국의 Axiomatique Technologies에 43.12% 지분을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실트레스에 20% 지분을 취득하여 관련 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025년 6월에는 넥스레이에 신규 투자를 단행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블루포인트파트너스(딥테크 분야의 전문 액셀러레이터)에 소액 지분을 보유하며 금융 투자 영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핵심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중고장비의 업황이 호조인 해에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

**수출 위주로 사업 전개**

서플러스글로벌은 2000년 3월 설립 이후 2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반도체 중고장비 거래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전해왔다. 설립 초기부터 수출 중심의 사업 전략을 펼쳐 2006년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 천만불, 2012년 이천만불, 2015년 삼천만불, 2017년 오천만불, 2018년 칠천만불을 거쳐 2021년 일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가 2010년 독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에 나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시장에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2017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 서플러스글로벌은 2018년과 2022년 Forbes 아시아 유망기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수출을 기반으로 서플러스글로벌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중고장비의 업황이 호조인 해에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왔다.

서플러스글로벌 매출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B2B 플랫폼 'SemiMarket'을 출시**

서플러스글로벌은 2025년 6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B2B 플랫폼 'SemiMarket'을 출시하며, 25년간 축적해 온 오프라인 중고장비 거래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SemiMarket은 서플러스글로벌의 리마케팅 서비스로 시작하여 2025년 12월 완전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6만대 이상의 장비 공급 경험과 15만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 그리고 수십만 개의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첨단 AI 매칭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활용한다. 특히 기존 반도체 부품 시장이 정보의 분산화,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 프로세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해 극도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SemiMarket은 판매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 방문자 수 50,000명 이상의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한 타겟 마케팅 효과를 보장한다. 또한 한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Parts Mall과의 연계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다. 서플러스글로벌은 글로벌 바이어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Fulfillment 서비스의 대폭 확대와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 관리 시스템)와의 완전 통합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확장을 통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거래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 'Semi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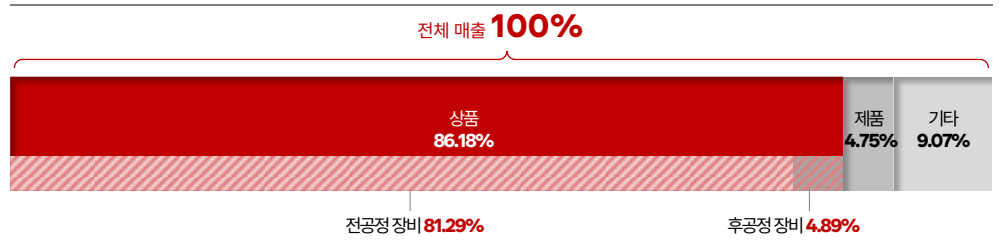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매출구성 중에서 상품 매출, 전공정 장비 비중 높은 편**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 상품 매출 중에서 전공정 장비 매출이 80% 이상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의 대부분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사업에서 비롯되는데, 2024년 기준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86.18%를 차지하며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품 매출 중에서도 전공정(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 장비가 81.29%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후공정(완성된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고 포장하는 과정) 장비가 4.89%를 차지하고 있어 전공정 장비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서플러스글로벌 매출 구성



자료: 서플러스글로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2025년 상반기에는 전공정 장비 비중이 76.26%로 다소 감소한 반면 후공정 장비 비중이 11.72%로 증가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품 매출은 4.75%, 기타 매출은 9.08%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Parts 비즈니스와 반도체 클러스터 시설 공유 서비스 등 신사업 영역의 본격 가동에 따라 매출 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반도체 중고장비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크게 변동하므로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추정이  
어려움**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고객사의 장비 주문에 의한 매입 가격, 고객의 요청사항, 부가 서비스 등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일괄적인 가격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장비 시장의 독특한 특성상 일반적인 중고품과 달리 연식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개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인다. 예를 들어 중고장비 시장에서 이미 사용자(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저가에 거래되던 장비라 하더라도, 해당 장비가 더 이상 신규 생산되지 않거나 특정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어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장비에 대한 공급은 부족하거나 감소했는데, 만약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판매시점이 1년 후이면 30% 가격 상승, 2년 후에는 60% 상승, 3년 후에는 90% 상승의 프리미엄을 받아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장비의 상태, 연식, 개조 여부, 설치 및 검증 서비스 포함 여부 등에 따라라도 가격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반도체 업계의 투자 사이클과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가격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중고장비 시장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서플러스글로벌의 분기별 매출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동사의 실적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중고장비를 매입하여 보관하고  
재정비한 후 판매하는 종합  
유통업체임**

서플러스글로벌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 중고장비이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입의 98.22%가 상품 매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유통업체의 특성을 보여준다. 매입 구조를 살펴보면 전공정(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하는 과정) 장비가 91.6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공정(완성된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고 포장하는 과정) 장비가 6.5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공정 장비 매입 비중이 88.28%로 다소 감소한 반면 후공정 장비 매입 비중이 11.72%로 증가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플러스글로벌은 별도의 생산설비나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주요 영업용 설비로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본사 부지(토지 401억 원, 건물 699억 원 규모)를 자가 보유하고 있어 중고장비의 보관, 전시, 리퍼비시(refurbish; 재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구조는 서플러스글로벌이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중고장비를 매입하여 보관하고 재정비한 후 판매하는 종합 유통업체임을 보여준다.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 80%  
이상**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구조는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2,516억 원 중 수출이 2,045억 원(81.3%)을 차지하고 내수가 472억 원(18.7%)을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영업 전략 측면에서는 동일한 영업인력이 장비의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현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별 수요 파악과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케팅 채널로는 연간 10여개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타겟 메일링, SNS 활용, 향온향습 전시장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 개발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잠재 바이어와 공급선 발굴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서플러스글로벌은 중고장비 거래업체로서 제조업체와 달리 주문 생산 방식이 아닌 현물 거래 중심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잔고나 백로그(backlog)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보유 재고의 수급 예측과 가격 변동 전망이 더욱 중요한 경영 지표로 작용한다.

**시너지가 기대되는 신사업  
영역으로 적극적인 확장을 추진**

서플러스글로벌은 기존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관련 밸류체인 내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신사업 영역으로 적극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풀필먼트서비스, 물류창고 운영 등 Parts 비즈니스와 관련된 8개 사업 목적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는 유지보수 만료 장비에 대한 부

품 기술지원과 중고 부품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시장의 10~15% 규모로 추산되는 Parts 비즈니스 시장에서 200mm(8인치) Legacy 장비의 OEM 서비스 종료에 따른 수요 증가에 주목하여,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도체 관련 제조·연구·교육 시설 공유 및 지원 사업도 신규 추가하여 약 80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시설과 측정·분석 장비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어, 단순한 중고장비 거래를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장비를 개조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

서플러스글로벌은 중고장비 유통업체이지만 단순한 매매에 그치지 않고 중고 반도체 장비 개조 시 필요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 이후 2021년에는 박막소자 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8명의 전담인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0.4~0.5%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중고 Etcher(식각장비,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으로 깎아내는 장비) 장비를 개조하여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나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초소형 기계 부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Deep Silicon Etcher 개발 연구와 중고 300mm(12인치) 식각장비를 개조하여 200mm(8인치) 반도체 식각장치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단순히 중고장비를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장비를 개조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니치마켓 개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비 개조 기술을 보유한  
서플러스글로벌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대규격 웨이퍼 장비의 소규격 전환이 실제로는 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왜 굳이 지름이 큰 300mm(12인치) 웨이퍼를 핸들링하는 식각장비를 지름이 작은 200mm(8인치) 웨이퍼 공정 장비로 바꾸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작은 웨이퍼 공정 장비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TSMC가 향후 2년에 걸쳐 6인치 웨이퍼 제조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하는 등 레거시(구형) 공정 라인을 축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TSMC는 이번 결정이 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TSMC는 대만에서 성숙 노드 칩 생산을 위해 1개의 6인치 웨이퍼 팹과 4개의 8인치 웨이퍼 팹을 운영하고 있으며, Apple과 NVIDIA 등 고객을 위한 첨단 노드 칩은 12인치 웨이퍼 팹에서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Coherent가 미국 텍사스 셔먼 공장에서 6인치 인듐인(InP) 웨이퍼 생산라인을 새롭게 가동하는 것처럼 특정 용도의 소규격 웨이퍼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 상황에서 6인치나 8인치 공정 장비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 중고장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장비 개조 기술을 보유한 서플러스글로벌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장비 거래를 넘어 고객 맞춤형 개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확보는 서플러스글로벌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주주 구성

### 김정웅 대표이사는 34.4%의 최대 지분을 보유

서플러스글로벌의 주주 구성은 창립자인 김정웅 대표이사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김정웅 대표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총 5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정웅 대표이사는 34.4%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병도 사내이사가 12.8%를 보유하여 경영진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김정웅 대표이사는 1990년 코오롱상사 철강사업부에서 시작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충청남도 통상지원관을 역임한 후 2000년 서플러스글로벌을 설립한 이래 25년간 일관되게 회사를 이끌었다. 김정웅 대표이사는 현재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총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 현황**

**1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수요처는 TSMC, UMC, SMIC 등 반도체 제조사**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0~8,000대의 반도체  
전공정 중고장비가  
입찰형식으로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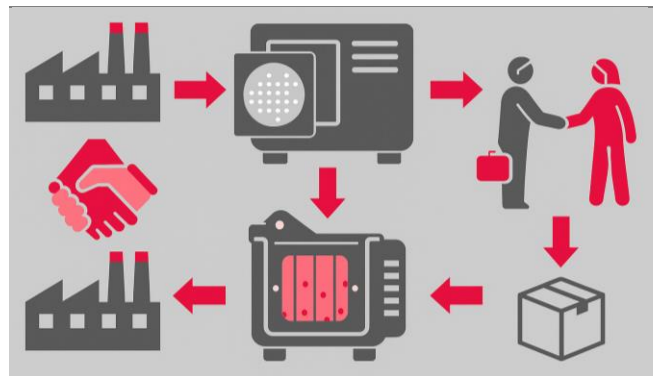
서플러스글로벌이 속한 산업은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인데, 신규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1차 시장이 아니다보니 중고장비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다만 업계 추정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7,000~8,000대의 반도체 전공정 중고장비가 입찰형식으로 매각되고 있으며, 서플러스글로벌과 같은 중고장비 매입·매각 업체들이 이러한 입찰을 통해 장비를 매입한 후 최종적으로 수요가 있는 팹(Fab,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에 매각하는 구조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 1차적인 수요처(중고장비의 매각 대상)은 TSMC, UMC, SMI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팹 간의 직접 거래, 유통업체와 반도체 장비회사 간의 거래, 유통업체와 리퍼비셔(Refurbisher, 중고장비를 재정비하여 성능을 복원하는 업체) 간의 거래, 유통업체 간의 거래 등 각 주체별 중고장비 수요에 따라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상 공식적인 통계나 시장 규모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Legacy 공정(기존 기술을 활용한 구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중고장비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중고장비의 1차적인 수요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자료: GPT,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각 주체별 중고장비 수요에 따라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거래 전개



자료: GPT,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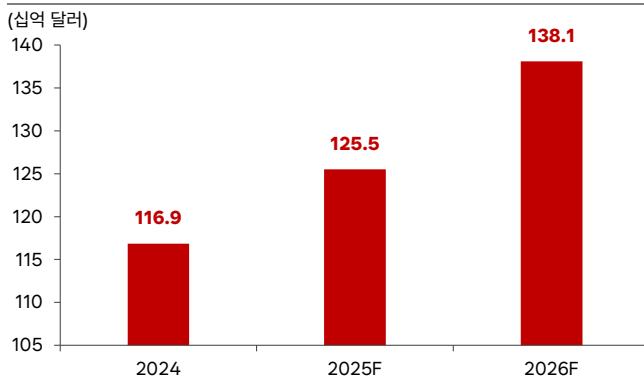
**반도체 신규장비 시장 성장이  
중고장비 시장 활성화의 핵심 동력**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이 성장하려면 사실상 반도체 신규장비 시장 자체가 성장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마치 명품 시장에서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예: 샤넬 클래식 백)이 인기가 있으면 해당 품목의 중고시장도 활성화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신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기존 장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고장비가 시장에 공급되며, 동시에 비용 절감을 원하는 2차 업체들이나 Legacy 공정을 운영하는 팹들의 중고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 보니, 최신 공정으로 전환하는 선도 업체들이 기존 장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중고시장이 형성되고, 이러한 장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후발 업체나 특수 용도 업체들에게 재활용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과 설비투자 확대는 중고장비 시장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는 서플러스글로벌과 같은 중고장비 유통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직결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가 발표한 2025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은 중고장비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SEMI의 '2025년 상반기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1,38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장은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혁신이 첨단 생산설비와 증설 투자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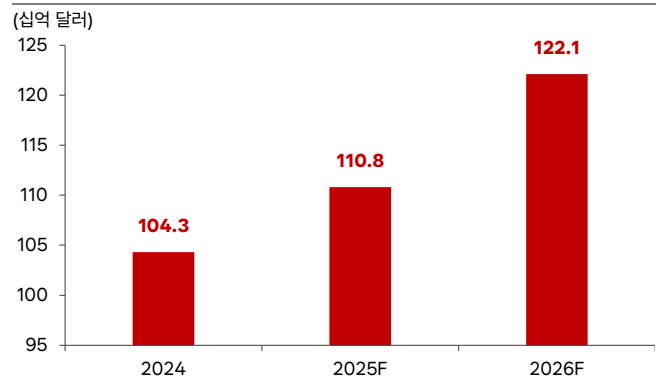
특히 서플러스글로벌의 주력 사업 영역인 전공정 장비 시장의 성장 전망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04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전공정 장비(Wafer Front End) 시장은 2025년에 6.2% 증가한 1,108억 달러, 2026년에는 10.2% 성장한 1,2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운드리 및 로직 분야는 2나노미터 공정 기반 대량 생산 체제로의 전환과 첨단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2025년 648억 달러, 2026년 690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NAND 장비 시장은 2025년 42.5% 급증한 1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신규장비 시장의 활발한 성장은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를 촉진하여 중고장비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2차 업체들의 중고장비 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서플러스글로벌과 같은 중고장비 유통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장비 중 전공정 분야 시장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2025년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 성장하는 글로벌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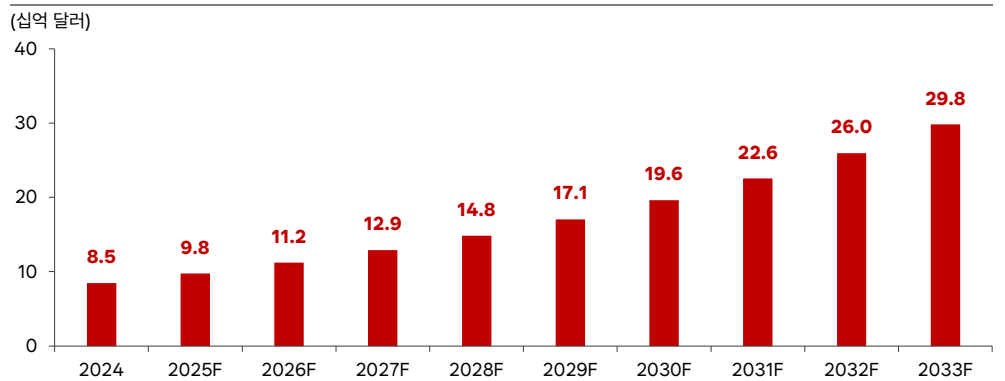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고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

이처럼 반도체 장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2025년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97억 5,6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 규모를 반도체 장비 시장 전체 규모의 10% 내외로 보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SEMI 추산)가 각각 1,169억 달러, 1,255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분석기관인 Arch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5.0%라는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률은 신규 반도체 장비 시장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중고장비 시장이 단순한 보조 시장을 넘어 독립적이고 중요한 산업 생태계

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가격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중소규모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연구기관들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중고장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중고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했다. 공급망 차질로 신규장비 도입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중고장비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Micron이 매각한 Fab을 다른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사례처럼, 기존 설비의 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인텔과 같은 대기업도 Arizona와 Ohio에 동시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장비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혁신이 첨단 생산설비와 증설 투자를 견인하고 있어, 기존 장비들이 중고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 전망**



자료: Archive Market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지리적 분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활동의 집중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반도체 제조업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TSMC, UMC, PSMC), 한국(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SMIC, Huawei)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자연스럽게 중고장비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에 이어 북미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

북미 지역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내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의 견고한 기반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트럼프 대통령)과 CHIPS Act(바이든 전 대통령) 등의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중고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반도체 제조 역량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고장비 시장도 성장 모멘텀을 얻고 있다.

**기술 노드별 시장 세분화**

중고장비 시장은 기술 노드에 따라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노드란 회로 선평의 미세함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고 첨단 기술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mature node(성숙 노드)는 28나노미터 또는 40나노미터 이상의 상대적으로 구세대 제조 공정을 가리키는데, 최신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3나노미터, 5나노미터 등의 최첨단 공정과는 구별된다.

**mature node 장비 시장이  
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

이러한 mature node 장비 시장이 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성숙 칩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수요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용 장비,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성숙 노드 칩들은 여전히 강력한 시장 수요를 보이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중고시장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극한의 성능보다는 안정성, 내구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검증된 성숙 기술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우 10년 이상의 긴 제품 생명주기와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요구되어 성숙 노드가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On device AI, Edge AI 용도의 저전력 칩은 40나노미터, 28나노미터 등 성숙 노드에서 생산된다.

반면 7나노미터 이하의 advanced node(첨단 노드) 장비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첨단 노드 장비의 기술적 복잡성과 높은 가치 때문으로, 이러한 장비들은 주로 대형 파운드리나 메모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5나노미터, 3나노미터 등 최신 공정 장비들의 경우 중고시장에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중고장비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는 분야는  
전공정 장비**

중고장비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는 분야는 서플러스글로벌의 매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정 장비다. 전공정이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핵심 제조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반도체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밀 장비들이 포함된다. 먼저 리소그래피(lithography) 장비는 마치 사진 인화 과정처럼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새기는 역할을 하며,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장비 중 하나다. 식각(etching) 장비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제거하여 회로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 증착(deposition) 장비는 웨이퍼 위에 금속, 절연체, 반도체 등의 다양한 물질을 원자 단위로 정확하게 쌓아올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ion implantation) 장비는 특정 원소의 이온을 웨이퍼 내부에 주입하여 전기적 특성을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정밀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리소그래피 장비의 경우, 신규장비의 극도로 높은 가격(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인해 중고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 ASML사의 최첨단 리소그래피 장비들은 희귀성 때문에 중고시장에서도 천문학적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때로는 신규 가격의 60-70% 수준에서도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가 장비들의 중고 거래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200mm(8인치) 웨이퍼 공정용  
장비의 비중이 적지 않은 편**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300mm 웨이퍼용 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류 반도체 제조 기술이 300mm(12인치) 웨이퍼 기반이기 때문이다. 신규장비 시장에서는 300mm 대 200mm 장비 비중이 약 85:15 정도로 300mm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만,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이 비중이 약 65:35 정도로 200mm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200mm(8인치) 웨이퍼용 장비들이 더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 중고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많고, 동시에 특정 용도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mm 웨이퍼용 장비가 중고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력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칩,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등의 제조에 200mm 공정이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300mm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기술적 필요성이 낮아 8인치 공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용 파워 반도체나 산업용 센서 등은 대량 생산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된 200mm 공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50mm(6인치) 및 기타 웨이퍼 크기용 장비들은 특수 용도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고도로  
분산된 시장**

한편,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된 고도로 분산된 시장이다. 시장의 한쪽에는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okyo Electron과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장비 제조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중고장비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사 장비의 생명주기 연장과 견고한 2차 시장 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장의 다른 한쪽에는 전문 중고장비 업체들이 있다. 서플러스글로벌, EquipNet(미국), Moov Technologies(미국)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며, 이들 기업은 반도체 중고장비의 매입, 재정비(refurbishment), 재판매,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 업체들의 존재가 시장의 경쟁력과 구매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Sumitomo Mitsui Finance(일본), Macquarie Semiconductor and Technology(호주)와 같은 금융 서비스 업체들도 장비 리스나 렌탈 서비스를 통해 중고장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교한  
리퍼비시먼트(refurbishment)  
기술의 발달**

중고장비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교한 리퍼비시먼트(refurbishment) 기술의 발전이다. 단순히 중고장비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장비의 성능을 복원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리퍼비시먼트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제조된 반도체 전 공정 중고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구사 능력은 물론 해당 장비의 기술적 특성과 수리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장비 매뉴얼, 기술 문서, 부품 사양서 등이 대부분 제조국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언어적 장벽과 기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성공적인 리퍼비시먼트 업체들은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장비 이력 추적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어, 중고장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는 구매자들이 장비의 정확한 상태와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 중고장비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문 리퍼비시먼트 센터들의 발달로 중고장비의 품질과 신뢰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중고장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신규장비의 급격한 가격 상승

중고장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신규장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다. 최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가격이 수십 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중고장비를 선택하고 있다. 중고장비는 신규 장비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납기라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이는 빠른 생산 확장이나 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28nm, 40nm 등 **성숙 노드 칩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구형 장비들의 시장 가치를 유지시키고 있다. 자동차, IoT, 산업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공정보다는 검증된 기존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중고시장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신흥 시장과 신규 팹의 확대**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 반도체 시장에서 팹 건설이 증가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고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도 중고장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중고장비 시장은 여러 도전과제도 직면

그러나 중고장비 시장은 여러 도전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기술 진보의 가속화**로 인한 장비 노후화 위험, **부품 조달의 어려움, 장비 상태 평가의 불확실성** 등이 주요 걸림돌이다. 또한 **품질 관리 표준의 부재**로 인한 구매 위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표준화된 품질 평가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매매 모델을 넘어 Equipment-as-a-Service(EaaS)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장비를 판매하는 대신 리스나 렌탈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생산 능력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특히 중소규모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장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장비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실시간 입찰, 원격 장비 검증 등이 가능해지면서 중고장비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여러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IoT의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는 중고장비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엣지 컴퓨팅과 자동차 전동화 트렌드는 다양한 기술 노드의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여 중고장비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각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정책은 중고장비 거래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제조 장비에 대한 제한이 중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5년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지속가능성 추구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7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해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투자포인트

### 1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

#### 글로벌 중고장비 시장, 독립 생태계로 발전

서플러스글로벌은 전 세계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2025년 97억 5,6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5.0%라는 강력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규 반도체 장비 시장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중고장비 시장이 단순한 보조 시장을 넘어 독립적이고 중요한 산업 생태계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혁신이 첨단 생산설비와 증설 투자를 견인하고 있어, 기존 장비들이 중고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서플러스글로벌 25년 경험, 6개국 네트워크로 글로벌 리더십 보유

서플러스글로벌의 경쟁력은 25년간 축적된 사업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다.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허브 지역에 해외 종속회사 6개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 대의 중고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일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2,516억 원 중 수출이 2,045억 원(81.3%)을 차지하여 글로벌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역별 수요 파악과 신속한 공급망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장비 고가격화로 성숙노드 중고장비 수요 증가

중고장비 시장의 성장 동력은 신규장비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서 나온다. 최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중고장비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성숙 노드(mature node, 28나노미터 또는 40나노미터 이상의 구세대 제조 공정) 장비 시장이 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용 장비,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성숙 노드 칩들이 여전히 강력한 시장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디바이스 AI(On device AI), 엣지 AI(Edge AI) 용도의 저전력 칩은 40나노미터, 28나노미터 등 성숙 노드에서 생산된다.

#### 신흥시장 팽 확산과 순환경제로 중고장비 성장 가속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확장과 레거시(Legacy, 기존 기술을 활용한 구세대)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고장비 시장은 더욱 견고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신흥 시장과 신규 팹(Fab,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의 확대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등 신흥 반도체 시장에서 팹 건설이 증가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고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도 중고장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에 있다.

### 2 'SemiMarket'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

#### SemiMarket 출시로 25년 노하우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

서플러스글로벌은 2025년 6월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플랫폼 'SemiMarket'을 출시하며 25년간 축적된 오프라인 중고장비 거래 노하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운영 중인 SemiMarket은 서플러스글로벌의 리마케팅(Remarketing, 중고제품의 재판매) 서비스로 시작하

여 2025년 12월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반도체 부품 시장의 분산된 정보, 복잡한 거래 과정,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한 극도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한 시장 혁신으로 해결하려는 야심찬 시도이다. 기존 반도체 부품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매칭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AI 매칭과 15만 고객사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연결 플랫폼

SemiMarket의 핵심 경쟁력은 서플러스글로벌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 시스템에 있다. 6만대 이상의 장비 공급 경험과 15만 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 수십만 개의 부품 DB(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발된 AI 기반 매칭 시스템을 통해 150,000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판매자들은 기본 수수료 50% 할인 혜택과 함께 일 방문자 수 50,000명 이상의 타겟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한국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Parts Mall과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풀필먼트와 블록체인으로 종합 서비스 플랫폼 진화 계획

2026년 이후 SemiMarket은 풀필먼트(Fulfillment, 주문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 서비스 확대와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 관리 시스템) 통합 연동을 통해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거래 중개를 넘어 물류, 재고관리, 품질검증까지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특히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거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를 혁신하고 시장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장비 이력 추적 시스템도 도입하여 중고장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로 반도체 거래 표준 생태계 구축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서플러스글로벌에게 확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거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참여자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중고장비 거래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비 개조 기술력과 Parts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신사업 확장

#### 연구소 설립으로 장비 개조 기술 개발, Parts 비즈니스 확장

서플러스글로벌은 단순한 중고장비 매매를 넘어 고객 맞춤형 장비 개조와 Parts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4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 이후 2021년에는 박막소자 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8명의 전담인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0.4~0.5%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중고 Etcher(식각장비,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으로 깎아내는 장비) 장비를 개조하여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나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Deep Silicon Etcher 개발 연구가 있다. 또한 중고 300mm(12인치) 식각장비를 개조하여 200mm(8인치) 반도체 식각장치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도 진행하고 있다.

**TSMC 레거시 라인 축소로  
소구경 웨이퍼 장비 개조 기회  
증가**

이러한 장비 개조 기술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이유는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대구경 웨이퍼 장비의 소구경 전환이 실제로는 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가 향후 2년에 걸쳐 6인치 웨이퍼 제조 운영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8인치 웨이퍼 생산 역량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발표하는 등 레거시 공정 라인을 축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TSMC는 대만에서 성숙 노드 칩 생산을 위해 1개의 6인치 웨이퍼 팹과 4개의 8인치 웨이퍼 팹을 운영하고 있으며, Apple과 NVIDIA 등 고객을 위한 첨단 노드 칩은 12인치 웨이퍼 팹에서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구경 웨이퍼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중고장비 프리미엄  
창출**

반면 일부 특수 용도에서는 소구경(6인치, 8인치)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및 광학 솔루션 전문업체인 Coherent가 미국 텍사스 셔먼 공장에서 6인치 인듐 인화물(Indium Phosphide) 웨이퍼 생산라인을 새롭게 가동하는 것처럼 특정 용도의 소구경 웨이퍼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Coherent는 데이터센터, 통신, 산업용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광학 반도체 소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이들의 소구경 웨이퍼 생산라인 증설은 광통신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수요-공급 불균형 상황에서 6인치나 8인치 공정 장비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 중고장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장비 개조 기술을 보유한 서플러스글로벌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장비에 대한 공급 부족이나 감소한데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판매시점이 1년 후이면 30% 가격 상승, 2년 후에는 60% 상승, 3년 후에는 90% 상승의 프리미엄을 받아 판매한다고 알려져 있다.

**Parts 마켓플레이스와 클러스터  
시설로 종합 서비스 기업 전환**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장비시장의 10~15% 규모로 추산되는 Parts 비즈니스 시장에서 200mm 레거시 장비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서비스 종료에 따른 수요 증가에 주목하여,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시에 2025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상거래, 풀필먼트서비스, 물류창고 운영 등 Parts 비즈니스와 관련된 8개 사업 목적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반도체 관련 제조·연구·교육 시설 공유 및 지원 사업도 신규 추가하여 약 80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시설과 측정·분석 장비를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신사업 확장을 통해 단순한 중고장비 거래를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적 추이 및 전망

### 2024년 실적 분석

####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

2024년 서플러스글로벌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516억 원으로 전년(1,660억 원) 대비 51.6%라는 대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전년(130억 원) 대비 8.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5.63%로 전년 7.85%에서 하락했다.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은 46억 원으로 전년(58억 원) 대비 12.65% 감소했으나 흑자를 유지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전공정 장비가 2,045억 원(8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후공정 장비는 123억 원(4.9%), 기타 매출은 228억 원(9.1%)을 기록했다. 2023년 반도체 업계 침체기를 거쳐 2024년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중고 장비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중고장비 거래량 및 가격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부채비율이 134.4%로 전년 82.0%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차입금 의존도는 42.7%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1.51회로 전년 1.32회에서 개선되었다. 다만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재고자산 확대(1,970억 원)와 운영비용 상승이 수익성 지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2025년 상반기 실적 분석

####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영업손실 기록

2025년 상반기 서플러스글로벌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037억 원, 영업손실은 1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1,196억 원 대비 13.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02억 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인공지능 중심의 반도체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인공지능 구현용 반도체가 주로 7nm 이하의 선단 공정 장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서플러스글로벌은 상대적으로 성숙 공정에 해당하는(28nm, 40nm 등) 중고장비를 더 많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실적이 2023년의 반도체 업황 부진에서 벗어나 매출액 51.6% 증가라는 빼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와 대비할 때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더욱 부진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업계 전반에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도체 관세가 100~300%를 넘나들며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이마저도 하루 이틀 사이에 뒤집히거나 우호적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신임 CEO(2025년 3월 취임)에게 사직을 권했다가 대면 미팅 이후 오히려 칭송하고, 이에 따라 인텔 주가가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하는 등 반도체 업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커졌다.

반도체 시장의ダイナミック한 변화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pplied Materials(AMAT) 콘퍼런스콜(2025년 8월 15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콘퍼런스콜에서 AMAT이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과 수출 라이선스 승인 지연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제기한 것처럼,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 역시 중국 내 반도체 팹들의 장비 투자 축소와 글로벌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재고자산평가손실 36억 원이 발생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다. 다만 2025년 1분기의 영업손실이 컸는데(29.7억 원) 2분기에 소폭 흑자 전환하면서(11.4억 원) 상반기 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 2025년 연간 실적 전망

#### 하반기 회복세 기대

2025년 서플러스글로벌의 연간 실적은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29.7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2분기 11.4억 원의 흑자 전환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더욱 개선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텔의 설비투자 정상화 가능성과 삼성전자의 미국 설비투자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신규장비 시장이든 중고장비 시장이든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연간 매출액은 2,187억 원으로 전년(2,516억 원) 대비 13.1%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75억 원으로 상반기 18억 원 손실을 하반기 흑자로 만회해 연간 기준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전년 영업이익(142억 원) 대비로는 크게 감소하지만,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집중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재고 정상화와 함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수요 확산에 따른 후방 효과와 함께 성숙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확산이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되면서 AI 반도체를 지원하는 주변 칩들과 전력 관리 칩, 센서 등의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28nm, 40nm 등 성숙 공정으로 제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숙 공정 장비가 주로 활용되는 Consumer Electronics 분야와 Industrial 분야에서의 수요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한 Texas Instruments(반도체 제조사)와 Amphenol(전자부품을 연결하는 커넥터 및 소켓 제조사)의 콘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Texas Instruments는 산업용 분야에서의 주문 증가를 언급하며 성숙 노드 기반 제품의 재고 수준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Amphenol 역시 산업 자동화, 의료기기, 통신 장비 등 성숙 공정 중심의 고객 수요가 전 분기 대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 성숙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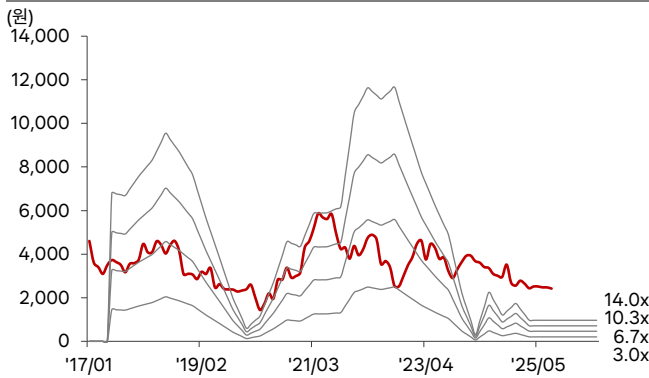
## Valuation

### 1 역사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과거에도 저평가, 현재에도 저평가

**2023년 반도체 업황 불황 이전  
PER Band 상단은 14.0배,  
하단은 3.0배 수준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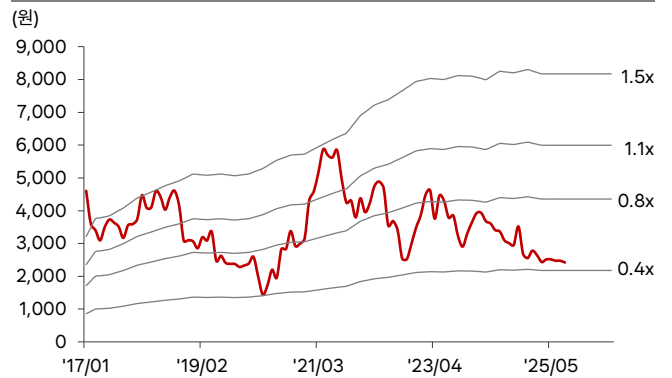
서플러스글로벌의 Historic P/E Band를 분석해보면, 2023년 반도체 업황 불황 이전 Band 상단은 14.0배, 하단은 3.0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사 중 특정 분야(노광 장비, HBM 패키징 장비 등)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경우 P/E 20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반도체 업황의 호황기에도 P/E Band 상단이 14.0배에 불과하다는 점은 동사가 저평가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중고장비 분야의 Pure Play 상장기업이 극히 드물어 적절한 비교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전망을 살펴보면,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흑자 전환으로 인해 연간 이익 추정치가 과거 수준 대비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P/E 수준은 시장의 고평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P/E 계산 시 분모가 되는 이익 규모가 작아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PER 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BR 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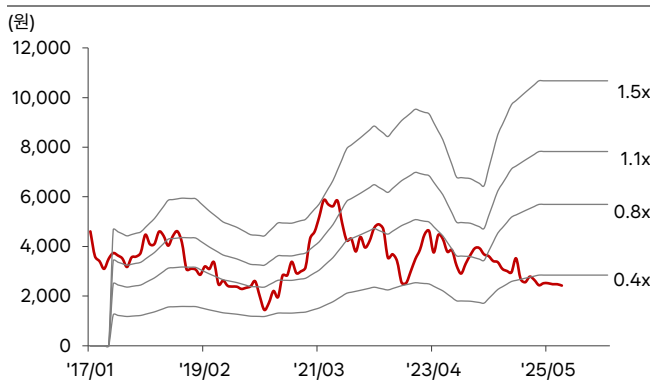
**2023년 반도체 업황 불황 이전  
PBR Band 상단은 1.5배,  
하단은 0.4 배 수준을 형성**

서플러스글로벌의 Historic P/B Band를 분석하면, Band 상단이 1.5배, 하단이 0.4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거래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P/B 1.5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P/B 1.0배 내외에서 거래되었다. 현재 P/B 0.5배 수준은 Historic Band 중위값(0.8배) 대비에서도 할인된 상태로, 동사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되어 왔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P/B가 더욱 낮아진 배경에는 2025년 1분기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주가 조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체 중고장비 분야의 비교 가능한 상장기업이 부재하여 시장에서 적정 밸류에이션 평가가 어려운 점과, 상대적으로 비주류 섹터로 인식되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제한적인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따라서 P/B 관점에서 동사는 장기간에 걸쳐 내재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S 기준 평가가 동사의  
사업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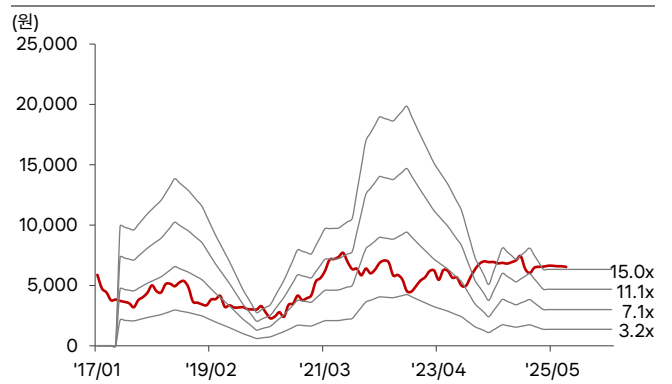
서플러스글로벌의 Historic P/S Band를 살펴보면, Band 상단 1.5배, 하단 0.4배로 형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동사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S는 1.5배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성장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음을 의미하며, 동사의 사업 확장이 실질적인 탐라인 증대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반도체 업황 둔화와 함께 P/S Band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 기준 밸류에이션은 손익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현재 수준은 동사의 사업 규모와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상당한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고장비 거래업의 특성상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수익성은 변동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P/S 기준 평가가 동사의 사업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PSR 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V/EBITDA 밴드**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EBITDA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분모인 EBITDA의 급격한 감소가  
해당 배수를 끌어올린 것**

서플러스글로벌의 EV/EBITDA Band는 상단 15.0배, 하단 3.2배로 형성되어 있으며, 2025년 전망 기준 15.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Band 상단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P/B, P/S 지표들이 모두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V/EBITD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사가 2025년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EBITDA 수준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분모인 EBITDA의 급격한 감소가 EV/EBITDA 배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EV/EBITDA가 급상승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실적 부진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EV/EBITDA 배수는 일시적 실적 악화에 따른 기술적 현상으로 해석되며, 동사의 근본적 기업가치나 시장의 고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실적 정상화 시 해당 지표는 다시 Band 중 위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반도체장비 그룹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밸류에이션 격차가 확인**

**2025년 1분기 적자 발생으로 인한 연간 이익 추정치 축소에 따른 기술적 현상으로, 실제 고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025년 전망 P/E 기준으로 서플러스글로벌과 주요 반도체장비 그룹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밸류에이션 격차가 확인된다. 서플러스글로벌의 2025년 P/E는 51.0배로 한국장비사 평균 25.6배, 미국장비사 평균 26.2배, 유럽·일본장비사 평균 40.3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25년 1분기 적자 발생으로 인한 연간 이익 추정치 축소에 따른 현상으로, 실제 고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점은 KLA, Lam Research, Tokyo Electron 등 글로벌 메이저 장비사들이 모두 20배대 P/E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각각 계측장비, 증착장비, 세정장비, 에칭장비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과점 업체로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반면, 서플러스글로벌은 일시적 실적 부진으로 인해 P/E 지표의 왜곡이 발생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만 증고장비 딜러라는 사업 특성상 과거 반도체 업황 호황기에도 P/E 20배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동종업계 수준으로의 완전한 수렴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2026년 기준 이익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점에서 2025년 하반기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어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시가총액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십억 원 기준, 주가는 각국 통화 기준, P/E는 배 기준)

지수 및 기업명	결산월	국가	연관성	주가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			P/E		
						2023	2024	2025F	2023	2024	2025F	2023	2024	2025F
<b>서플러스글로벌</b>	<b>12</b>	<b>한국</b>	<b>증고장비</b>	<b>2,300</b>	<b>85</b>	<b>166</b>	<b>252</b>	<b>219</b>	<b>13</b>	<b>14</b>	<b>8</b>	<b>23.3</b>	<b>20.6</b>	<b>51.0</b>
원익PS	12	한국	신규장비	41,550	2,039	690	748	915	-18	11	90	N/A	52.9	28.7
주성엔지니어링	12	한국	신규장비	26,800	1,267	285	409	340	29	97	64	48.5	13.2	21.7
HPSP	12	한국	신규장비	25,750	2,150	179	181	188	95	94	97	44.3	25.1	26.5
<b>평균(한국장비)</b>												<b>30.4</b>	<b>25.6</b>	
Applied Materials	10	미국	신규장비	161	179,469	34,573	36,562	39,427	9,822	10,584	11,886	16.3	21.1	17.3
Teradyne	12	미국	신규장비	110	24,206	3,471	3,844	4,014	650	809	789	39.7	37.9	35.6
KLA	6	미국	신규장비	878	161,059	13,883	12,783	16,770	5,266	4,359	7,150	20.1	40.7	27.0
Lam Research	6	미국	신규장비	99	174,351	23,052	19,418	25,377	6,845	5,555	8,136	19.4	36.7	25.0
<b>평균(미국장비)</b>												<b>34.1</b>	<b>26.2</b>	
ASM International	12	네덜란드	신규장비	407	32,502	3,709	4,325	5,313	1,224	1,183	1,525	31.0	40.2	27.5
Be Semiconductor	12	네덜란드	신규장비	117	15,376	815	896	973	300	288	306	63.8	59.5	66.3
ASML Holding	12	네덜란드	신규장비	638	406,698	38,799	41,680	52,181	12,730	14,655	17,397	34.3	32.0	27.1
Tokyo Electron	3	일본	신규장비	20,925	92,862	17,214	22,238	22,903	4,293	6,373	5,921	50.7	17.1	19.7
Kokusai Electric	3	일본	신규장비	2,944	6,595	1,701	2,185	2,331	290	470	446	44.7	15.9	19.2
<b>평균(유럽, 일본장비)</b>												<b>32.9</b>	<b>40.3</b>	

주: 서플러스글로벌 실적은 한국IR협의회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8월 20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ChatGPT, Claude AI, Perplexit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 1 반도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 변동

서플러스글로벌이 주력으로 다루는 성숙 공정 장비의 수요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의 적극적인 다각화를 추진

첫째, 시장 변동성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경기 변동이 극심한 가운데,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서플러스글로벌이 주력으로 다루는 성숙 공정 장비의 수요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의 적극적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서플러스글로벌은 Parts 비즈니스, 클러스터 시설 운영, 온라인 플랫폼 'SemiMarket'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중고장비 거래를 넘어선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 거래 플랫폼의 디지털화 추진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으로 시의적절한 접근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거래량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는 업계 전반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서플러스글로벌은 25년간 축적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깊이 있는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고객별 리스크 분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6개국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지역별 수요 변동을 상호 보완하고 있으며,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통해 특정 분야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 또한 단순 중고장비 매매를 넘어 리퍼비시,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품 공급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 접점을 다변화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 2 재고자산 관리의 복잡성과 평가 변동성이 사업 특성상 내재

거래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변화나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장비 가치가 변동

둘째, 재고자산 관리의 복잡성과 평가 변동성이 사업 특성상 내재되어 있다. 반도체 중고장비의 특성상 거래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변화나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장비 가치가 변동될 수 있어 2025년 상반기에도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특히 OEM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한 레거시 장비나 특정 공정에 특화된 장비의 경우, 대체재가 없어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재나 산업재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 평가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200mm 웨이퍼 공정 장비의 경우 신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기존 200mm 팹들의 지속적인 운영 수요로 인해 중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팹들의 기존 라인 호환성 유지 필요성, 검증된 장비에 대한 선호도, 특정 고객사의 승인된 장비 리스트 (Approved Vendor List) 등으로 인해 구형 장비라 할지라도 꾸준한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자동차, IoT(사물 인터넷), 산업용 반도체 등 성숙 공정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최신 장비보다도 검증된 중고장비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장비의 연식이 반드시 가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희귀 장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여 '빈티지 와인'과 같은 투자 자산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러한 시장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25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장비별 시장 수요 예측, 기술 로드맵 분석, 고객 니즈 파악 등을 통해 전략적 재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200mm부터 300mm까지, 다양한 공정과 용도의 장비를 골고루 확보하여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평가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동성을 수익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349	1,660	2,516	2,187	2,625
증가율(%)	13.7	-29.3	51.5	-13.1	20.0
매출원가	1,762	1,268	2,082	1,811	2,173
매출원가율(%)	75.0	76.4	82.8	82.8	82.8
매출총이익	587	393	435	376	451
매출이익률(%)	25.0	23.6	17.3	17.2	17.2
판매관리비	268	262	293	301	301
판매비율(%)	11.4	15.8	11.6	13.8	11.5
EBITDA	376	189	203	163	221
EBITDA 이익률(%)	16.0	11.4	8.1	7.4	8.4
증가율(%)	6.3	-49.6	7.3	-19.9	35.7
영업이익	319	130	142	75	150
영업이익률(%)	13.6	7.8	5.6	3.4	5.7
증가율(%)	3.7	-59.2	8.6	-46.9	100.1
영업외손익	17	-61	-80	-52	-49
금융수익	44	23	52	59	59
금융비용	74	85	117	112	109
기타영업외손익	46	1	-15	1	1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36	69	62	23	102
증가율(%)	-6.6	-79.5	-10.0	-63.0	344.1
법인세비용	78	13	13	5	24
계속사업이익	258	56	49	18	7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58	56	49	18	78
당기순이익률(%)	11.0	3.3	1.9	0.8	3.0
증가율(%)	-7.4	-78.5	-12.6	-63.6	343.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6	58	46	17	74

**현금흐름표**

(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91	-205	11	301	-124
당기순이익	258	56	49	18	78
유형자산 상각비	54	57	57	68	61
무형자산 상각비	3	2	5	20	9
외환손익	8	5	27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7	-327	-119	201	-267
기타	-55	2	-8	-6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1	108	-255	-80	-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858	732	196	3	-4
유형자산의 감소	69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62	-34	-187	-90	0
기타	-986	-590	-264	7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33	33	719	0	-150
차입금의 증가(감소)	-141	90	741	0	-150
사채의증가(감소)	300	-2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7	-17	-10	0	0
기타	-9	-20	-12	0	0
기타현금흐름	-1	-1	18	1	1
현금의증가(감소)	102	-65	492	222	-276
기초현금	126	227	163	655	877
기말현금	227	163	655	877	601

**재무상태표**

(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2,215	2,016	2,868	2,801	2,909
현금성자산	227	163	655	877	601
단기투자자산	193	27	21	18	22
매출채권	62	30	57	50	60
재고자산	1,155	1,366	1,970	1,712	2,055
기타유동자산	578	429	165	143	172
비유동자산	1,468	1,426	1,653	1,653	1,586
유형자산	895	832	1,005	1,027	966
무형자산	17	19	48	28	19
투자자산	107	116	152	149	153
기타비유동자산	449	459	448	449	448
자산총계	3,683	3,442	4,521	4,453	4,495
유동부채	1,191	1,090	2,239	2,157	2,117
단기차입금	303	492	1,231	1,231	1,131
매입채무	81	19	170	148	178
기타유동부채	807	579	838	778	808
비유동부채	628	461	353	350	354
사채	300	300	0	0	0
장기차입금	303	141	328	328	328
기타비유동부채	25	20	25	22	26
부채총계	1,818	1,551	2,592	2,507	2,471
지배주주지분	1,845	1,873	1,907	1,924	1,998
자본금	37	37	37	37	37
자본잉여금	323	327	327	327	327
자본조정 등	-52	-64	-72	-72	-7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1	7	7	7
이익잉여금	1,537	1,575	1,609	1,625	1,699
자본총계	1,865	1,891	1,929	1,946	2,025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5.1	23.3	20.6	51.0	11.5
P/B(배)	0.7	0.7	0.5	0.4	0.4
P/S(배)	0.5	0.8	0.4	0.4	0.3
EV/EBITDA(배)	5.3	12.5	11.0	11.8	9.5
배당수익률(%)	1.4	0.8	0.0	0.0	0.0
EPS(원)	691	157	124	45	200
BPS(원)	4,988	5,065	5,157	5,202	5,402
SPS(원)	6,351	4,489	6,803	5,913	7,096
DPS(원)	50	30	0	0	0
수익성(%)					
ROE	14.8	3.1	2.4	0.9	3.8
ROA	8.0	1.6	1.2	0.4	1.7
ROIC	12.6	4.4	4.1	2.3	4.6
안정성(%)					
유동비율	186.1	185.0	128.1	129.8	137.4
부채비율	97.5	82.0	134.4	128.8	122.0
순차입금비율	37.4	52.4	65.5	53.6	57.6
이자보상배율	7.9	2.2	1.8	0.8	1.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7	0.5	0.6	0.5	0.6
매출채권회전율	49.6	35.8	57.2	40.7	47.8
재고자산회전율	2.2	1.3	1.5	1.2	1.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서플러스글로벌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22	서플러스글로벌-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빈티지 와인 딜러
2022.08.04	서플러스글로벌-반도체 중고 장비 업계의 서울육선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